

행복청, 집현동 캠퍼스공원구역 ‘청년 친화형 복합공간’으로 특화 착수

- 총괄 전문위원(MA) 선정 완료, 2027년 마스터플랜 마련 및 조경설계 착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 청장 강주엽)은 집현동 캠퍼스공원구역(특별계획구역42)의 특화계획 수립을 총괄할 전문위원(Master Architect, 이하 MA)을 선정하고, 차별화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마스터플랜 마련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캠퍼스공원구역(특별계획구역42)은 공동캠퍼스 인근 문화공원(39,121㎡), 상업업무용지(C4·C5, 12,768㎡), 주차장용지(1,617㎡) 등 총 면적 53,507㎡ 규모이다. 응실천 폐천에 따라 용도변경된 문화공원과, 상업업무용지 등을 대학·연구기능을 지원하는 핵심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특별계획 구역으로 지정되었다.

행복청은 공동캠퍼스 학생과 교직원 등을 위한 교육·연구 지원 기능을 비롯해 문화여가생활편의 기능을 확충하고, 상층부에는 청년 주거 기능을 도입하여 청년 친화형 복합공간으로 특화할 예정이다.

또한 공동캠퍼스, 복합캠퍼스, 삼성천으로 이어지는 대규모 문화공원과 건축계획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보행중심의 공공공간을 조성하여 시민과 학생이 함께 이용하는 지역 대표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행복청은 이번에 전문위원(MA)로 선정된 호남대학교 건축학과 배지윤 교수를 중심으로 조경·축·도시계획 등 분야별 전문가와 협업하여 기존 정형화된 필지 계획에 대한 재검토, 복합캠퍼스 등 주변 지역과 연계 방안, 응실천 폐천에 따른 수공간 계획 등을 종합 검토해 대상지 전체 마스터플랜과 함께 세부 특화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그간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업성을 제한하는 과도한 건축적 제약 사항은 지양하고, 사업성 제고 방안과 상가 활성화 방안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계획 수립 시 공동캠퍼스 학생, 교직원 등 의견 수렴을 통해 이용자가 실제 필요로 하는 실효적 공간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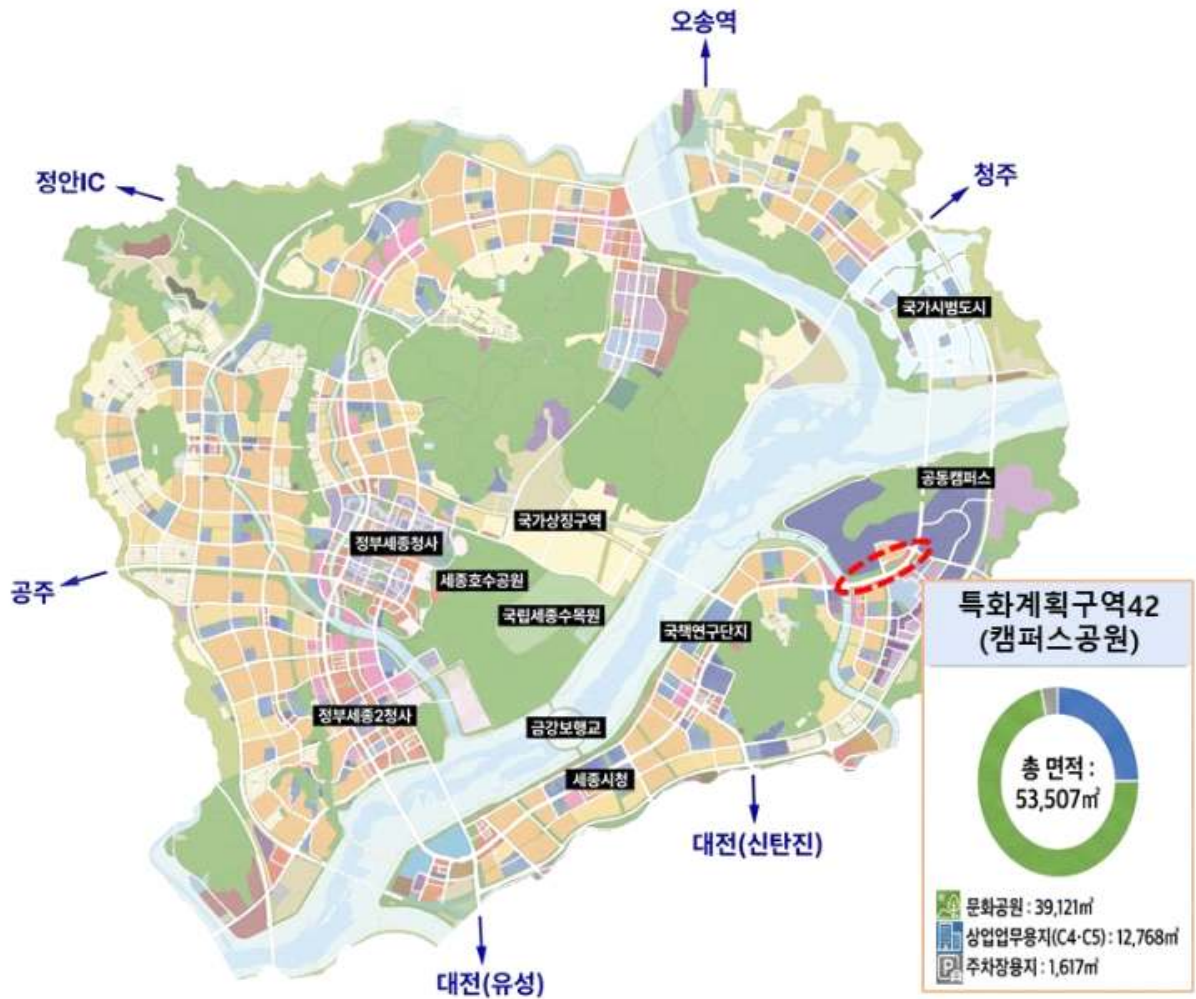
행복청은 2027년 상반기까지 대상지 전체 마스터플랜과 세부 특화계획(안)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토지공급 및 조경설계에 착수하여 2031년에 조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최형욱 차장은 “캠퍼스공원구역(특별계획구역 42)은 공동캠퍼스와 함께 행복도시의 새로운 도시 활력 거점이 될 중요한 공간”이라며, “향후 다양한 의견수렴 등을 통해 마스터플랜의 완성도를 높여, 대학생과 청년이 모이는 대학가 대표 명소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 특화사업 위치도 및 개발계획 평면도 각 1부.

담당 부서	도시계획국 도시공간건축과	책임자	과 장	최시복 (044-200-3160)
		담당자	사무관	박진희 (044-200-3163)







용도	블록		면적(m ²)	건폐율(%)	용적률(%)	층수	비고
상업업무	4-2생	C4	7,309	70	400	6	-
	4-2생	C5	5,460	70	400	6	-
주차장	4-2생	주4-8	1,617	70	400	6	-
문화공원 4-5			39,121	-	-	-	-
합계			53,507				